

## 사설시조의 ‘속됨’ 양상과 그 의미

이수곤\*

<차례>

1. 들어가면서
2. 사설시조에서 자연 공간의 의미 - 일상적 공간
3. 사설시조에서 시간의 의미 - 역사적 현재(불가역성)
4. 사설시조의 ‘속됨’ 양상이 갖는 의미

### <국문초록>

본고는 종교적인 시각에서 사설시조의 특성을 살폈다. 그 결과 사설시조의 특성이 ‘통속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설시조 속 자연은 공간적으로 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속됨의 속성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일상적이고 때로는 유흥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더 이상 우주의 이치, 이법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속되었다. 영원성보다는 찰나성의 경향을 보인다.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유한성을 사대부 시조에서는 영원성으로 전환하여 인식하였는데, 사설시조에서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유흥과 쾌락의 길로 나아갔다.

조선은 이념 · 집단 · 이성이 동궐을 이루는 종교의 시대였다. 이러한 면에서 사설시조에 보이는 공간과 시간 인식은 대단히 반종교 반이념적이어서 반조선적이다. 사설시조에 대한 기존 논의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과 비판’이라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찾았다. 본고는 탈이념적이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은 셈이 되었다.

□ 사설시조, 성스러운, 속됨, 자연, 시간, 수기의 공간, 일상적 공간, 영원한 현재성, 역사적 현재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양과 강의전담조교수

## 1. 들어가면서

필자의 박사논문인 『사설시조의 통속문학적 성격 연구』<sup>1)</sup>는 사설시조의 문학적 의의를 ‘근대적 성격 · 중세 비판 · 시민의식의 발로’ 등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대한 반성적 검토에서 비롯되었다. 사설시조를 진지한 감상물로 보려는 기존 논의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사설시조의 사설시조다움을 ‘통속’으로 판단하였으며, 진지한 감상물이 아닌 유희적 성격이 강한 오락적 감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속을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것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통속적 특성으로 ‘이해의 용이성, 진지성의 회피, 이질성의 공존’에 주목하였다. 구조주의적 시각을 전제로 사설시조의 형상화 방식을 시적 기법 중심으로 살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였다. 비대칭적 양항대립 양상을 ‘진지함과 웃음’으로 놓았을 때, 사설시조는 웃음에 기울어진 양상을 보였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는 99차 하계 학술대회의 주제를 ‘한국 고전문학의 쁘과俗의 세계’로 정하였다. ‘성과 속’은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한-유한, 영원-찰나, 고상함-저열함, 정전-오락물, 무거움-가벼움’ 등 여러 양항대립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논문<sup>2)</sup>을 통해 필자는 이미 사설시조의 특성을

1) 이수곤, 『사설시조의 통속문학적 성격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5.

2) 『셋서방[소대남편]』 등장 사설시조의 문학적 의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전연구』 3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소대남편[셋서방, 간부]』 등장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조선후기 시조의 놀이 지향성 고찰』, 『서강인문논총』 42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조선후기의 탈중세적 징후들』, 서강대출판부, 2014.

‘통속’에 있다고 보았지만, 단정 짓기보다는 시각을 달리하여 끊임없이 살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제껏 해온 필자의 논의는 구조적이고, 사회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에서는 종교적인 기준에서 사설시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다. 성-속은 다방면의 고찰이 가능하지만, 聖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녔기 때문이다. 즉 ‘속’을 ‘성’과의 비교를 통해 살필 때에는 종교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M. 엘리아데의 『성과 속』의 논의를 기준으로 하여 사설시조의 문학적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sup>3)</sup> 『성과 속』의 여러 서술 중 특히 1, 2장에 서술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 2. 사설시조에서 자연 공간의 의미 - 일상적 공간

시대가 바뀌면서 구체적 양상은 달리했겠지만, 성스러움과 속됨은 세상에 늘 공존해 왔다. 성과 속은 인간의 생존 양상이기도 하거니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도 관련된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성과 속은 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두 양상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려 한다. 즉 인간 유형의 좌표적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 가령 생활의 대부분을 ‘聖’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 엘리아데는 이를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불렀다.

종교적인 사람들, 즉 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

3) 다양한 시각의 종교 이론을 참고해야 마땅하지만 엘리아데의 견해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좀 더 폭넓고 입체적인 논의는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엇이든 구분하려 든다는 점이다. 세상을 균질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스러운 세상이 있다. 속된 것과는 다른 세계이다. 성스러운 것의 현현이 절대적 중심이 되고, 고정점이 된다. 고정점이 절대적 중심이 되면, 방향성이 생기고, 질서정연한 세계가 형성된다. 코스모스이다. 코스모스는 카오스와는 구별되는 다른 세계이다. 세상을 균질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종교적 인간의 인식 혹은 시선은 공간에도 적용되게 마련이다.<sup>4)</sup>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공간은 ‘자연’이다. 먼저 평시조의 자연 공간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 필자의 예전 논의에서 밝힌 것들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sup>5)</sup> 그런 후 본고의 주 고찰 대상인 사실시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볼 예정이다. 시조 속 형상화된 공간의 ‘성과 속’을 이야기하려 할 때, 왜 자연이어야 하는가?

국문학에 있어서 자연이 가장 문제시된 것은 李朝文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詩歌가 그렇다. 李朝詩歌의 내용은 반 이상이 자연이고, 그 자연의 지나칠 정도의 풍부함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상한 감까지 느끼게 하며, 나아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생각 키우게 한다.<sup>6)</sup>

최진원의 지적과 같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다. 아무래도 유교의 영향 같다. 당대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 『대학』 8조목의 시작은 ‘格物致知’이다.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달려있다’ 함은 지식[知]를 온전히 추구하려면 사물[物]을 마주하고 거기에 담긴 이치[理]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마음은 영명하여 모든 지

4) M. 엘리야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51~7쪽.

5) “이수근, 『16세기 사대부의 자연 인식 양상과 시조사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에서 자연 공간의 의미에 대해 살펴 바 있다.

6)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7쪽.

식[知]이 그 안에 갖춰져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다 리[理]가 내재해 있다. 천하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장소가 자연이다. 이렇기에 조선에서 자연은 중요한 장소였으며, 그래서 고전 국문시가 소재로서 “이상한 감”이 느껴질 정도로 풍부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진원은 조선조 시가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理’의 표상으로 보는 것과 ‘興’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다.<sup>7)</sup> 김홍규는 이 두 가지 태도를 理法이 현현된 형이상학적 관점이 투영된 자연과 감각적·즉물적·심미적 인식이 반영된 자연으로 표현하였다.<sup>8)</sup> 즉 전자는 자연을 추상적인 대상으로 여겨 철학적 인식의 공간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후자는 물리적인 실체로서 자연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싶다. 엘리아데의 견해에 따르면, 전자는 종교적인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이며, 후자는 비종교적이고 속된 인간의 시선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sup>9)</sup> 신성화된 즉 성스러움이 반영된 자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좌표로 하여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조 속 자연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幽蘭이 在谷 ㅎ니 自然이 들디 ㄷ해  
 白雲이 在山 ㅎ니 自然이 보디 ㄷ해  
 이 ㄷ에 彼美一人이 더욱 ㄷ디 ㄷㅎ애

이황의 <도산십이곡> 중 4곡이다. 계곡에 퍼진 은은한 난초의 향기, 하얀 눈이 쌓인 산의 모습은 당연히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적 진술이다.

- 
- 7)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104~5쪽.  
 8) 김홍규, 『16, 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88쪽.  
 9) 엘리아데, 앞의 책, 147쪽.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 하여 만족스런 자연 속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한 사람을 잊지 못하겠다고 한다. “美一人”이 나라를 대신하는 임금을 상징한다면, 자연은 격물치지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4곡이 “言志”편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또 격물(초중장)과 치국(중장)의 갈등, 즉 修己와 治人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사대 부에게 보편적인 出處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春風이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  
 흥물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니 그지 이슬고 (6曲)

봄바람이 불어 꽃이 산에 가득하고, 가을밤에 달빛이 누각에 가득하다. 사계절에 맞보는 흥겨움은 사람 역시 같다. 자연에서 느끼는 흥은 우주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방향으로 연결된다. “사시가흥”에서 “어약연비·운영천광”으로 생각이 이어진다. ‘어약연비’는 『시경』 「대아」 ‘한록편’에 보인다.

“<포박자>에 이르기를 ‘솔개가 아래에 있을 때에는 힘이 없다가 상공에 이르게 되면 몸을 솟구쳐 날개를 곧게 펼 뿐이다.’ 하였으니, 솔개가 나는 것은 전혀 힘을 쓰지 아니하여 또한 고기가 ‘못속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아서 즐거이 자득하여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sup>10)</sup>

솔개는 하늘을 날아야 힘이 솟는다. 物은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이 모여 전체가 되고, 조화를 이룬다. 자연의 오묘한 도다. 사계절의 자연스러운 순환, 각 계절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한

10) 성백효 역주, 『시경전서 하』, 전통문화연구회, 1998, 216쪽.

해를 엮어 나간다. 이황은 여기서 우주자연의 이치를 생각하였다. 계절의 순환과 각 계절이 불러일으키는 흥을 느끼며 오묘한 자연의 도를 생각한 이황과 날아가는 새를 보며 우주자연을 읽은 박지원은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같음을 보여준다.<sup>11)</sup> 자연은 우주 만물의 법칙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江湖歌道の 참모습을 보여준다. 사대부 시조 속 자연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nature를 뜻하기보다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뜻하는 ‘스스로 그러함’ 즉 self-so를 의미한다.

李滉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이 도학적 시의식에 투영된 자연은 우주 만물과 인간에 내재된 이법의 현현이요 거대한 조화의 형상이었다. 반면에 鄭澈과 申欽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의미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대신에 감각적, 즉물적인 자연의 모습이 뚜렷하게 부각된다.<sup>12)</sup>

이법의 현현이요 거대한 조화의 형상을 자연으로 본 견해인데, 이것이 성스러운 인간이 자연을 보는 시선이다. 8조목이 사대부의 인식과 행동의 강령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한 자연은 격물치지의 장소로 의미매김할 수밖에 없다. 자연은 우주의 이치와 현묘가 함께하는 공간이고, 성스러운 인간은 자연을 통해 이를 파악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조선 사대부의 의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철과 신흠의 시조에서 자연은 즉물적이고 감각적인 모습이 부각된다는 평가는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자연이 성스러운 공간 의미에서 벗어나기에는 사대부의 인식에 있어서 이황과 정철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또 사회문화적 환경 면에서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11) 박지원은 『答京之二』에서 날아가는 새를 보며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라고 하였다.

12) 김홍규, 『16, 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1999, 188쪽.

생각이 본고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즉 이황과 정철은 사대부의 보편적인 인식 양상을 공유하였으며,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 18세기 후반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인식의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고 본고는 판단한다. 정철의 시조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江湖의 괴약두고 십년을 분뉴하니  
그 모르는 백구더러 더디온다 헛것마는  
성은이 지동 헛기로 갑고 가려 흐노라

강호와 성은 사이의 갈등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성은은 임금으로, 임금은 나라로 그 의미를 확장하면, 치국을 우선시 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초·중장에 서술된 자연을 이법이 현현된 공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서 자연을 대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즉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감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 다음은 이이의 <고산구곡가> 중 일부이다.

四曲은 어드믹오 松崖에 헛 넘거다  
潭心 巖影은 온갓 빗치 잠겨세라  
林川이 깊도록 釣호니 興을 계워 흐노라 (4곡)

주목을 요하는 구절은 “興을 계워”이다. ‘흥’을 이전 사대부 시조에 나타나는 자연 감상 태도와는 다른 성향을 띤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이치의 현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유희적 성격이 좀 더 부각된 공간으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흥의 성격을 즉



물적이고 감각적인 감상의 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고산구곡가」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율곡이 생각하는 학문이란 단순히 주자(朱子)의 책을 읽고 그의 논리를 익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월음풍으로 대표되는 흥이 가득한 삶이 동반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 공부의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우주와 만나는 내면의 흥취가 더욱 도도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sup>13)</sup>[밑줄은 필자]

「고산구곡가」의 궁극적 지향점은 ‘學朱子’로 수렴된다. 이를 기반으로 흥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흥을 자연 경관의 수려함을 본 후 느끼는 감정적 흥겨움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위의 시각처럼 “우주와 만나는 내면의 흥취”가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겉으로 표출되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기쁨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싶다.

또한 송시열의 한역 시와 대비하면,<sup>14)</sup> 답답하면서도 차분한 표현이며 감정의 절제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온갖 색이 어둠 속에 묻힌 해넘어간 저녁이기에, 임천에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감정은 관념적이게 심상이다. ‘흥’은 遊興이 아닌 幽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sup>15)</sup> 즉 감정이입

13) 김봉기, 「<고산구곡가>에 나타난 이상향의 의미」, 『율곡사상연구』 29집, 율곡학회, 2015, 249쪽.

14) 송시열은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한역하였다. 송시열의 한역시와 「고산구곡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역시가 「고산구곡가」의 의역인지 직역인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본고에서 살피는 것은 본고의 목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장황한 문제이기에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박을수의 견해에 기대어 직역이라는 관점을 본고는 따른다.(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하권, 아세아문화사, 1992, 1537쪽.)

15) 『해동가요』(주씨본), “四曲何處是 松崖日西沈 潭心巖影倒 色色皆醜之 林泉深更好 幽興自難勝” 송시열 한역시.

이 억제된 흥이며,<sup>16)</sup> 정감은 충만하지만 감정표현은 지극히 절제되어 있는 흥이다.<sup>17)</sup>

『고산구곡가』에서 자연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는 은은하다. 김혜숙이 지적한 대로 『고산구곡가』의 자연은 “유람적 승경 혹은 흥취의 대상으로서의 승경이 아니라 이상적 삶의 터전을 의미”하며,<sup>18)</sup> 조선 성리학의 보편적 정서의 표출 공간이다. 16세기 시조의 특징인 관념적 자연이라는 의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성스러움과 속됨이란 양항 대립(binary opposition)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살펴본 시조의 자연 공간 의미는 ‘성스러움 > 속됨’<sup>19)</sup>이라는 비대칭적 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본고의 주 고찰 대상인 사설시조의 경우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자체가 그 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한다. 자연 공간이 수기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몇몇 안 되는 자연 소재 사설시조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功名을 헤아리니 榮辱이 半이로다  
 東門에 掛冠하고 田廬의 도라와서  
 聖經 賢傳 헛쳐 노코 읽기를 罷흔 後에  
 압늻에 슬진 고기도 낙고 뒷뵈에 엄긴 藥도 킨다가  
 臨高遠望 호야 任意 逍遙 호니

16) 최진원, 『고산구곡가와 담막』,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64쪽.

17) 김혜숙, 『〈고산구곡가〉의 정신적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528쪽.

18) 위의 논문, 530~1쪽.

19)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는 없다. 양항이 단순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통합하려는 역동적 움직임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송효섭, 『제의와 놀이의 기호학』,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82~104쪽 참조.

淸風이 時至호고 明月이 自來호니  
 아지 못게라  
 天壤之間에 이 긋치 즐거움을 무어스로 代호소니  
 平生의 이리저리 즐기다가  
 老死太平호야 乘化歸盡호면  
 기 도훈가 호노라 <악학습령>

사대부의 삶은 修己治人으로 대표된다고 하였다. 자연은 수기의 공간 이고, 세상의 다스림의 공간이다. 수기는 치국과 평천하를 위한 출발점이다. 사대부의 궁극의 목표는 평천하이이고, 그 시작은 자연이다. 위 시적 화자는 관직을 내려놓는다. 영예와 함께 치욕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정치 현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염증의 대상일 뿐이다. 사대부 시조에서 흔히 보이던 미련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법이 현현된 자연 속에서 격물치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수기의 공간은 아니다. 아니 수기의 공간일 필요가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성경과 현전 읽기를 마친 후에 자연에 나아간다. 자연에서의 행위는 낚시와 약초 캐기다. 원경을 조망하고 뜻대로 거니는 공간이다. 이것이 자연의 즐거움이다. 이치의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다. 安貧樂道가 아니라 安分知足이라 할 수 있겠다. 평천하의 출발점인 수기에 따른 즐거움이 아니라 분수에 만족한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수기의 공간도 아니고, 삶의 이치를 깨닫는 장소도 아니다.

十年은 글을 일고 또 十年은 칼을 배워  
 二十年이 將盡토록 글과 칼이 虛事로다  
 두위라 書劍을 다 버리고 江湖에 漁夫 되어  
 萬事無心, 一釣檣으로 斜風 細雨 不須歸를. <평주본 시조집>

<功名도 헤아리니 榮辱이 쏘이로다~>에서 알 수 있듯, 공부의 목적이 수기와 치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공명과 영예에 있었다. <십년은 글을 읽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글과 칼 모두가 허사라고 하였다. 사대부의 爲己之學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강호로 가 어부가 되었다 한다. 인생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강호는 현실을 피하여 은둔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世上事 浮雲이라 江湖의 漁夫 될지어다  
 小艇의 그물 실코 順流로 내려가니  
 淸風은 徐來하고 水波는 不興이라  
 銀鱗 玉尺 펼 펼 썩고 白鷗 片片 내려 든다  
 隔岸 前村 兩三家 저녁 煙氣 이러나고  
 半照入江 半石壁의 새 거울을 거러 논 듯  
 滄浪歌 반겨 듯고 七里灘 내려 가서  
 고기 주고 술을 사서 醉도록 마신 후에  
 欸乃曲 불느면서 달을 세우고 도라오니 世上 알가 念慮로다.

<관서본 시조>

<십년은 글을 읽고~>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설시조이다. 어부가 된 후의 삶을 자세히 풀어놓았다. 잡은 물고기와 술을 바꿔 취하게 마신 후 집으로 돌아오는 어부의 생활을 그렸다. 세상이 알까 두려워하니 은둔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역시 강호는 이법의 현현하고는 거리가 먼 장소이다. 일상적 삶의 공간일 뿐이다. 아래에 제시한 사설시조는 위 시조보다 한 걸음 더 俗으로 들어갔다.

죽장 망해 단표자로 천리 강산 드러가니

그 곳지 골이 깊혀 두견 접동이 나제 운다  
구름은 뭉게뭉게 휘여 낙낙정송에 들너 잇고  
바람은 살살 부러  
시늬 암상에 곳 가지만 썰썰이는고나  
이 곳지 별유천지 별건곤이니 아니 놀고 <남훈태평가>

앞선 시조에서 자연은 일종의 도피처로서 기능했다. 은둔의 장소였다. 염세주의가 전제된 공간이었다. 이 시조 역시 염세주의적 사고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별유천지 별건곤”이 근거이다. 자연을 은둔처로만 읊조리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즐겨야 할 공간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를 유흥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 다만 조선 후기 가치관 변화의 징후가 드러나거나, 혹은 내재된 가치관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듯하다. 자연소재 시조는 아니지만, 이러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어 아래의 시조는 의미심장하다.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불 아니 썩일지라도 절노 익는 솟과  
녀무죽 아니 먹어도 크고 술저 혼 건는 물과  
질숨흐는 여기첩과 술 심는 주전자와  
양 보로 낫는 감은 암쇼 두고  
평생의 이 다섯 가져서면 부를 거시 이시랴. <악학습령>

윤선도의 다섯 가지 벗 수·석·송·죽·월이 조선 후기 사실시조에서는 술·

말·기생첩·주전자·암소로 대체 되었다. 주지하듯 수석송죽월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다. 인간이 지향해야 할 혹은 갖춰야 할 덕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술·말 등 다섯 개는 모두 일상의 삶을 윤택하게 즐기게 해줄 수단으로서의 기능하는 물건들이다.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이 일상적 삶에서의 유용성으로 대체되었다. 조선후기에 사설시조 속에서의 자연은 이 범의 현현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거나 열어지고,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 3. 사설시조에서 시간의 의미 - 역사적 현재성(불가역성)

성스럽고 종교적 인간은 공간을 구별하듯, 시간 역시 연속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절하여 구분한다.<sup>20)</sup> 현재를 살면서도 일상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성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sup>21)</sup> 시간을 ‘지금과 영원성’으로 구별하여 인식한다. 가령, 예배를 드리는 순간의 시간은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이다.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다. 물리적 시간은 지금이지만, 의식하고 있는 시간은 돌아가고 싶은 그때이다. 종교적인 인간은 신화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순환적이고, 가역적이다.

고즌 무스 일로 뛰며셔 쉬이 디고  
 풀은 어이 향야 프로논 듯 누르느니

20) 엘리아데, 앞의 책, 89쪽.

21)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 2004, 59쪽.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쨌인가 흐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는다  
 더러코 사시에 프르니 그를 도하 흐노라

五友 중 바위와 대나무를 노래한 윤선도의 시조이다. 꽃은 피었다가는 지고, 풀은 푸른 듯 누렇게 된다. 꽃과 풀은 변한다. 바위는 변함이 없다. 대나무의 칭송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변함없이 푸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곧기까지 하다.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이 변하게 마련이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상적인 시간 지속에서 탈출하여 영원성으로 간다는 점에서 바위와 대나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靑山은 옛제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제하야 晝夜에 굿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하리라.

늘 푸른 산, 밤낮으로 흐르는 강을 보면서 굳은 다짐을 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그린 시조이다. 청산과 유수는 꽃 · 풀과는 다르다. 꽃과 풀이 가변과 무상을 뜻한다면, 청산과 유수는 불변 · 영원과 관련된다. “言學” 편임을 감안한다면,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굳은 다짐의 순간을 노래하였다. “언학”편에 같이 실려 있는 아래의 시조 역시 동일한 시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  
 古人 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너

너든 길 알피 잊거든 아니 너고 잊절고.

고인은 아주 먼 옛날을 살았던 인물이다. 시간의 엇갈림으로 만날 수가 없는 고인이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남아 내 앞에 있다고 하였다. 아니 갈 수 없다고도 하였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옛날이 지금과 만나는 순간이다. 과거가 현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먼 옛날 예수님의 죽음이 기독교인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과 동일하다. “시계에 의해서 계측되는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이 아니라 시계침과는 관계없이 마음 가운데서 성취되는 카이로스(kairos)의 시간”<sup>22)</sup>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사대부의 시조는 이법이 현현된 자연에서, 그 이법을 알아내기 위해 옛 성현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현이 살았던 그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과 현존하는 과거가 되어야 한다. 성현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간 인식, 즉 과거는 ‘영원한 현재성(ever presentness)’으로 자리하고 있다.<sup>23)</sup>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전형적인 시간관이다. 사대부 시조에 형상화된 자연과 시간 인식의 특징을 조운제는 “江湖歌道”라 칭했던 듯하다.<sup>24)</sup> 이상향을 향할 수 있는 가역성, 이상향이 지금도 현현하고 있다고 믿는 영원한 현재성, 주기적으로 이상향이 도래하는 순환성 등의 시간 인식은 사대부 시조의 기본적 시간관이다. 조선후기 성행했던 사설 시조의 시간관은 이와 다르다.

오우가를 패러디한 사설시조에서 봤듯이, 사설시조의 세계관·가치관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집단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 지향적인 삶과

22)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343쪽.

23) 성기옥 외, 앞의 책, 59쪽.

24)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261쪽.



는 이질적이다. 이념보다는 욕망을 더 지향하고, 무거움보다는 가벼움에  
 방점이 있다. 사설시조를 지배하는 원리는 웃음이다.<sup>25)</sup> 시간에 있어서는  
 영원성보다는 찰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종교적인 인간의 시간관과  
 는 거리가 있다.

어차피 인간의 삶이란 유한하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시간의 유한함은 삶의 유형으로 양극단의 좌표 설정이  
 가능하다. 종교로의 회귀 혹은 성스러움의 추구를 통해 영원성을 추구하  
 기도 하지만, 삶이 지속 되는 동안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있는 그대  
 로 인식하면서, “먹고 놀자”라는 찰나주의와 향락주의의 인생관을 형성시  
 킬 수 도 있다.<sup>26)</sup> 전자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황 등 사대부의 시조였다면,  
 사설시조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다.

千秋 前 尊貴키야 孟嘗君만 흘가마는

千秋 後 冤痛흠이 孟嘗君이 더욱 싫다

食客이 저듯든가 名聲이 괴요튼가

개 盜賊 들의 우름 人力으로 사라나셔

말이야 주거지여 무덤 우회 가식 나니

樵童牧豎들이 그 우호로 것니며셔

슬픈 노래 恨 曲調를 부르리라 헤여실가

雍門調 一曲琴에 孟嘗君의 한숨이

오로는 듯 느리는 듯

야희야 거문고 청 처라 사라신 제 놀리라.

<진본 청구영언>

천하에 존귀하였던 맹상군. 진 나라의 소왕에게 죽임을 당할 번하다가

25)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49쪽.

26) 이재선, 앞의 책, 335쪽.

기르던 식객의 재주로 살아났으나, 인간인 이상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살았을 때 놀자는 내용이다. 생의 유한성에 기초한 인식이자 태도이다. 시간의 흐름을 인간은 어찌할 수 없다는 의식이기도 하다. 탈신성화된 시간은 불안하고 덧없는 지속으로 나타난다.<sup>27)</sup> 생의 유한성은 사설시조뿐 아니라 많은 시의 소재이다. 서정시에 있어서 보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유한성 혹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놀자’의 연결은 필연적이지 않다.<sup>28)</sup> 그럼에도 사설시조에서 자주 연결되는 것은 사설시조에 나타난 시간관이 영원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종교적이지 않고, 그래서 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세월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이다.

歲月아 네월아 가지를 마라 가지를 마라  
 青春 紅顏이 다 늙는구나  
 人生 一生 生覺곳 하니  
 잠든 날 病든 날 다 除히 노면  
 다만 단 四十 못 사는 人生  
 안이 놓고서 무엇을 하리  
 오날도 날이오 棘일도 날이라  
 오날도 놀고 來日도 놀고 놀고 놀고 놀아를 보세 <고대본 악부>

사설시조의 시간성이 단적으로 나타난 노래이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그래서 청춘의 얼굴이 늙는다. 잡을 수 없는 시간인데, 이것저것 제하면 40년도 못 사는 인생이다. 역사적 현재만을 인식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

27) 엘리아데, 앞의 책, 120쪽.

28) 강명관, 「사설시조와 여항한시의 대비적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2집, 140~1쪽.

서 놓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모티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앞서 보았듯 사대부 시조에서 시간의 유한성 자체를 주목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적어도 눈에 띄만한 정도는 아니다. 인생무상과는 큰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 사설시조는 인간 생존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인생무상에 집중하게 되어 찰나성으로 생각의 추이가 이루어진다. 이에 소비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 4. 사설시조의 '속됨' 양상이 갖는 의미

구조주의적 시각을 주로 한 필자의 박사논문에서 사설시조의 특성으로 '통속성'을 주의 깊게 살폈다. 진지한 감상물로서 사설시조를 살핀 기존 논의에 대해 반성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이번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마련한 기획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를 얻게 되어, 박사논문과는 달리 종교적인 시각에서 사설시조의 특성을 살폈다. 그 결과 사설시조의 특성이 '통속성'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검토되지 못해 여러모로 거친 논의가 되었지만, 앞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고 싶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설시조 속 자연은 공간적으로 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속됨의 속성을 지닌다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상적이고 때로는 유흥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더 이상 우주의 이치, 이법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 수기(修己)와는 관련이 적어 보인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사대부 시조와는 다르다. 영원성보다는 찰나성의 경향을 보인다. 불가항

력적인 인생의 유한성을 사대부 시조에서는 영원성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비해, 사설시조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인생무상과 연결시키고 유흥과 쾌락으로 나아간다. 일종의 카르페 디엠의 모습을 보인다.

조선은 유교 중심의 나라였다. 유교이데올로기에서 이탈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데올로기가 승하게 되면 이념만 남고 다른 모든 것은 잠재된 채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데올로기는 집단적이어서 개인적 행위는 허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념은 이성적이어서 욕망은 숨김의 대상이다. 즉 이념(이데올로기)·집단·이성이 종교적인 속성으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욕망·개인·감성이 한 묶음으로 자리한다.

조선은 이념·집단·이성이 동궐을 이루는 종교의 시대였다. 이러한 면에서 사설시조에 보이는 공간과 시간 인식은 대단히 반조선적이자 반종교적이다. 그렇다면 사설시조에서 보이는 이러한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엘리아데의 견해에 따르면 비종교적인 인식과 그 인간은 근대적인 성향에 근접해 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획득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설시조에 대한 기존 논의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과 비판’에서 즉 이념적인 측면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았다. 본고는 탈이념적이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은 셈이 되었다. 사설시조가 근대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은 기존 논의와 본고가 동일하면서도, 그 근거는 정반대에서 찾은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관한 깊은 논의는 다른 자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명관, 「사설시조와 여항한시의 대비적 고찰」, 『한국한문학회연구』 22집, 한국한문학회, 1998, 139~170쪽.
- 김풍기, 「〈고산구곡가〉에 나타난 이상향의 의미」, 『울곡사상연구』 29집, 울곡학회, 2015, 225~253쪽.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1~241쪽.
- 김홍규,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338쪽.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1~1912쪽.
-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 2004, 1~602쪽.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357쪽.
- 이수곤, 「16세기 사대부의 자연 인식 양상과 시조사적 의의」,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7~31쪽.
- 이수곤, 「사설시조의 통속문학적 성격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5, 1~141쪽.
- 이수곤, 「셋서방[소대남편] 등장 사설시조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전연구』 3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281~302쪽.
- 이수곤, 「소대남편[셋서방, 간부] 등장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41~65쪽.
- 이수곤, 「조선후기 시조의 놀이 지향성 고찰」, 『서강인문논총』 42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286~309쪽.
- 이수곤, 『조선후기의 탈중세적 징후들』, 서강대출판부, 2014, 1~256쪽.
-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607쪽.
-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1~466쪽.
-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1~338쪽.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1~270쪽.
-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1~237쪽.

ABSTRACT

The aspect of 'Secularity' in SaSeolSiJo and the meaning

Yi, Su-gon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aSeolSiJo in religious view.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aSeolSiJo are in the "Popular character".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The nature of SaSeolSiJo was far from the sacred one. I thought it was the attribute of the Popularity. It is a daily and fun space. The laws of space and legislation were not in place. The perception of time was popular. There is a tendency toward brevity rather than permanence. SiJo pursued eternity in a finite life. The private sijo was accepted as it is, and went on the path of pleasure.

Joseon was an age of religion in which ideology, group, and reason were tied together. In this respect, the space and time perception in SaSeolSiJo are very anti - religion, anti-ideological and anti-Joseon. The existing discussion on SaSeolSiJo found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in the ideological aspect of 'rebellion and criticism against the existing order'. This paper is based on de-ideology.

**Key Words** SaSeolSiJo, Sacred, Secularity, Nature, Time, Space for Self-training, Everyday space, Eternal Presence, Historical Present

논문투고일 : 2017.10.15  
심사완료일 : 2017.11.09  
게재확정일 : 2017.11.15